

우리의 **국외 사역**

한국

산위에교회
최해성 목사

필리핀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GENESIS
JOSUE
LUIS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CAMILA
JENNSY
LIA
ORIANA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콜롬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기도 처소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Enjoy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Increase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Global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Harvest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배풀어주는 교회



Training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기도 처소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He is alive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461 Orange Ave, Los Altos, CA

제 4호 32권		Vol. 4 No.32		8.10.2025	
여는 기도		김태아 전도사			
Opening Prayer		Taeah Kim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우빛나래 성도			
Representative Prayer		Bit Na-rae Woo			
말	씀	열두 돌을 세웠더라		담임 목사	
Sermon		여호수아 4장 1-24절		Senior Pastor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봉헌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담임 목사			
Announcements		Senior Pastor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담임 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8/10	8/17	8/24	8/31	9/7
우빛나래	김정태	김찬양	김대환	박소려

1. 유스 수련회

유스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의회

일시: 8월 24일 (주일) 오후 1시
장소: 교회 본당

3. 가정 예배지 안내

매주 주일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4. 8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고린도전서 ~ 요한계시록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 식탁 교제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이동해 주셔서 식탁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8월 생일

8.05 김승연 전도사

8.17 반가희 집사

8.23 김도희 성도

8.29 김보라 전도사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데살로니가전서 4:1-12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전서 5:1-11	데살로니가전서 5:12-28	데살로니가후서 1:1-12
Grace Kim	Sam Kim	이중록	김태아	임성호

8.10.2025

제노포비아 :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제노스(Xenos)’와 ‘두려움’을 뜻하는 ‘포보스(Phobos)’의 합성어로, 외국인이나 이민자 등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노포비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들을 제노포비아로 바라볼 수 있는 잠재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고쳐야 할 시각>

제노포비아의 가장 큰 편견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타민족을 ‘우리와 다르다’는 막연한 생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쉽습니다. 특정 국적의 사람들은 이렇 것이라는 선입견, 이민자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오해, 낯선 문화는 우리 사회를 해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소수의 부정적인 사례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확대되면서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와 다르다’는 잣대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좋은 방향>

제노포비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낯선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왜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편견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현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 정책이나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